

건설소식

정부 시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대폭 확대

시공비율 40% 넘기면 최대 12%까지 가점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최대 12%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점비율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 → 6% △30% 이상 35% 미만 → 8% △35% 이상 40% 미만 → 10% △40% 이상 → 12%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취득점수의 최대 8%까지 가점을 부여해 왔다.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시 가점을 올리고 앞으로 전개될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해당 지역

업체 시공참여 가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가 1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인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지역가점을 받을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낙찰가능성이 높아지고 PQ를 실시하는 최저가 낙찰제, 턴키·대안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업체 가점이 상향됨에 따라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가점 없이 86점 정도 얻으면 적격심사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83점 수준이면 통과가 가능하고 최저가나 턴키·대안입찰공사도 가점을 제외하고 84점을 맞아야 통과되던 것이 81점 수준이면 PQ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의 이번 조치로 실적이 적어 공사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업체들이 지역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최대 천연가스 배관망 발주

1조 3,090억 규모...17개 공구 1,004km

국내 천연가스공급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배관망 건설공사가

발주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발주금액 1조 3,090억원의 17개 공구, 주배관 총 길이 1,004km, 공급관리소는 98개소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번 발주에 따르면 계약방법은 PQ대상공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심사로 하며 PQ심사 신청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또한 가스공사는 이번 발주에서 입찰 대상 업체들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단일화했다.

전 공구 입찰건에 대해 실적인정규모는 2.6km 이상, 평가기준 규모는 8km이다. 또 시공경험평가는 가스공사 PQ세부기준 '500억원 미만' 기준을 일괄 적용, 평가하고 경영상태는 최근 정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개정(2009. 4. 8)분을 반영해 평가한다.

공동계약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다만 미실적업체 포함시 3개사까지 공동수급업체 구성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공구수를 제한해 대표사 기준으로 1개사가 5개 공구까지만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계약은 6월경, 본격적인 공사는 7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 2,739km인 전국 배관망은 2013년
 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5년간 배 3,893km로 늘어나게 된다.
 관망 건설공사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추정가격(VAT별도)	공사기간
상주~영주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90.6km - 관리소 : 6개소	101,313,768,000원	09.6~13.12
보은~무주 주배관 및 영동관리소 건설공사	- 배관 : 86.98km - 관리소 : 9개소	98,876,944,000원	09.6~12.12
울진~속초 주배관 제3공구 건설공사	- 배관 : 71.85km - 관리소 : 10개소	95,753,794,000원	09.6~13.12
김천~함양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98.6km - 관리소 : 7개소	92,897,114,000원	09.6~12.12
동김천~문경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57.4km - 관리소 : 5개소	89,769,187,000원	09.6~12.12
음성~괴산, 제천~단양 주배관 및 횡성관리소 건설공사	- 배관 : 76.24km - 관리소 : 9개소	87,920,355,000원	09.6~11.12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23.48km - 관리소 : 3개소	87,845,035,000원	09.6~12.12
울진~속초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 배관 : 66.21km - 관리소 : 8개소	87,286,761,000원	09.6~13.12
울진~속초 주배관 제1공구건설공사	- 배관 : 56.18km - 관리소 : 6개소	86,460,613,000원	09.6~13.12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2공구건설공사	- 배관 : 64.3km - 관리소 : 4개소	81,882,100,000원	09.6~13.12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건설공사	- 배관 : 56km - 관리소 : 4개소	81,608,109,000원	09.6~13.12
김제~부안, 고창~영광·장성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71.15km - 관리소 : 6개소	74,808,364,000원	09.6~12.12
포항~영덕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42.7km - 관리소 : 5개소	64,675,946,000원	09.6~12.12
목포~해남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48.22km - 관리소 : 5개소	50,775,201,000원	09.6~12.12
장동~담양, 옥과~남원 주배관건설공사	- 배관 : 45.28km - 관리소 : 4개소	49,372,685,000원	09.6~12.12
논산~부여, 아산~배방 주배관 건설공사	- 배관 : 25.5km - 관리소 : 3개소	39,581,656,000원	09.6~12.12
밀양~청도 주배관 및 하동·고성관리소 건설공사	- 배관 : 22.9km - 관리소 : 4개소	38,220,464,000원	09.6~12.12

하도급 공정협약 제대로 안지켜

8개 대기업 1년간 이행실적평가
... 대립 등 4곳 C등급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키로 약속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립산업·두산건설·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 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 4,764개 협력사와 체결한 상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4개 건설사는 대체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도 개선치 않았다"며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해당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축 건물 '지열 설비·LED조명' 채택

에너지 효율화 지침...3년내 에너지사용량 30% 절감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하는 건축물에는 지열설비와 로이유리,

LED조명이 집중 채택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 효율화 지침'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설계 관련 정부 기준 9개, 시 기준 6개 중 발주부서의 현실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본부는 향후 발주공사에 지열 냉난방설비를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폐열, 태양광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채택할 방침이지만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지열방식을 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중인 도봉산복합환승센터와 제2유스호스텔, 광진소방서 등에 지열설비를 채택할 방침이다. 또 상암 DMC 내 'IT 콤플렉스'도 지열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본부는 공공공사 설계시 창면적을 최소화하고 로이유리를 채택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단열재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본부는 조명과 관련,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 조명 설치물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LED를 집중 활용하는 한편 유비쿼터스센서를 설치해 필요한 조명만 가동키로 했다.

이밖에 본부는 매립가스를 활용한 수소스테이션을 서울 각 지역에 건립,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 관계자는 "신개념의 조명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해 향

후 2~3년 내 공공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30%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술교육원, 6월부터 인터넷 원격교육

건설기술교육원은 오는 6월부터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선진 건설기술 및 공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토목분야(전문교육) : 도로 및 암사면, 교량하천, 터널 및 지반조사, 단지조성기술 △토목분야(기본교육) : 토목일반 실무 1~3 △건축분야(전문교육)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공사, 대형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신기술 신공법 및 현장관리 △건축분야(기본교육) : 건축일반실무 1~3 △공통과정(전문교육) : 건설사업비 심화과정, 건설사업관리 절차 및 생산성 향상 과정, 건설클레임 및 효율적 자금조달 과정, 건설분쟁관리 전문가 과정(공공/민간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하려면 인터넷 원격교육 21일(21시간 이상)과 집체교육 2일(16시간)을 소화해야 한다.

인터넷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1일과 7일 개설하며 집체교육의 경우 서울은 매달 1번, 인천은 격월마다 1번씩 실시한다.

교육을 받으려면 5월 중순부터 교육원 홈페이지(www.kict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